

[여수·순천·광양]

‘먼바다 가두리 양식장’ 무산 위기

전남도·여수시, 거문도 해역 5ha 조성 추진
어민들 “어장 상실” 반발...사업 지지부진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진중인 ‘외해(먼바다) 수증가두리 양식장’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여론 수렴작업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여수시와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추진된 ‘외해 수증가두리 양식어장(이하 수증어장)’ 사업이 기존 어장 상실을 우려한 해당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수개월째 접자 선정도 하지 못한 채 자리걸음을 걸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적조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증어장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여수시 거문도 해역에 12억여 원을 투입, 모두 5ha 규모의 수증어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수증어장은 연안 해역 대신 해안선으로부터 10km 이내, 수심 40m 가량의 먼바다 속에 가두리를 설치, 먹이를 공급하면서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이다. 바다 깊은 곳에서 양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어민들의 조업지역으로, 수증어장을 설치할 경우 어선을 이용한 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현지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역인 서도리 어촌계의 경우 110여 명이 계원외 등록돼 있으며, 55척의 소규모 어선들이 통발과 자방·외줄낚시 등을 이용,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와 여수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서둘렀으며, 어민들이 반발하자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참 뒤인 지난 9월 27일에서야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어민들의 불신만 키

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도리 어촌계장 대리를 맡고 있는 안갑산(53·삼산면 서도리)씨는 “사업 추진과정도 의문투성이지만 어민들의 생활터전에 수증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업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 사전에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 오해를 부른 것 같다”며 “현지 어민들이 계속 반대를 경우 고구마주 등 다른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고구마 수확 체험

농협 남순천지점(지점장 정순균)은 지난 11일 고객 50여 명을 초청,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일대 200여평의 밭에서 고구마와 옥수수 수확체험행사를 가졌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광양 자유무역지역 첫 외국 투자 그로텔 공장 준공

광양 자유무역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외국 투자법인인 ㈜그로텔 광양공장이 13일 준공됐다.

으로 연간 3천만달러~5천만달러 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주)그로텔은 내년 초 광양에 통신관련 물류기지를 유치할 계획이어서 관련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성훈기자 chkim@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센터’

“조망권 침해” 주민 반대로 착공 무산

여수에 세워질 예정이던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가 조망권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한의대 유치문제도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기공식을 강행하려 한 것은 이미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뜻을 접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14일 여수시 국동캠퍼스 체육관에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이 박스형 실험센터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이 훼손된다며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도 기공식 연기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국동 캠퍼스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추진 중인 전남대가 한의학과와 무관한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기공식을 갖는 데 대해 일부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공식이 돌연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민들은 전남대측이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정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험센터

국비와 시비, 대학 자체 부담금 등 101억원이 투입돼 2009년 완공 예정인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실험센터는 건축면적 6천82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실사단도 캠퍼스내 실험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학원 유치와 실험센터 건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공노조 - 농협순천시청출장소 조합비 이체 마찰

“업무 방해” “정보 유출” 맞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이하 순천공노조)와 농협중앙회 순천시청출장소가 노조 조합비 이체를 둘러싸고 경합에 맞고소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경합에 고소했으며 순천공노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 순천출장소를 고소했다.

순천공노조 관계자는 “오는 20일 순천 시급고 유지기관 선정을 앞두고 농협측이 순천시 노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순천시청출장소측은 “노조탈퇴서를 시로부터 받은 이상 이체를 해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 단신/

소방단체 사칭 책자 강매 잇따라

여수지역에서 전직 소방공무원 단체를 사칭하며 소방관련 책자를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출판사에서 소방관련 기업체 및 종사자들에게 ‘재난연감’이나 ‘119 활동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강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소방공무원단체를 사칭해 소방공무원 병원설립과 소방공무원 복지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책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는 책 강매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전화로 소방감사 및 교육훈련 등 각종 소방활동 등이 사실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양시 2012년 주소 표기 방식 개편

광양시의 주소 표기 방식이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달라진 새주소 표기 방식이 적용될 경우 광양시청은 현재의 ‘중동 1313번지’에서 ‘시정앞길 8번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도로명판 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와 건물 속성조사를 2009년까지 보완해 모든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또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광양=김성훈기자 chkim@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list various loc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RYN shoes, featuring a red and white sneaker. Text includes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and prices for sports and casual shoes.

Advertisement for Caleo flooring, featuring a modern interior with a fireplace. Text includes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aeyang Sangs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ong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Eulji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woo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ightwell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hinha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gh Rank Construction,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and Gwangyang.